

## '86 우리 경제

이제 얼마 가지않아 '86년을 보내고 우리는 또 期待에 부푼 또 다른 한 해인 '87년을 맞게 된다. 年末年始가 가까이 오면 의례히 하는 일 이기는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일은 우리에게 큰 뜻 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지난 한 해를 反省을 하면서 이를 새로운 한 해에 보탬으로, 活用함으로써 보다 나은 成果를 거둘 수 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85年末에 '86년을 내다 봄에 있어서 '86년 은 '85년 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모두가 내 다 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놓고 보 니 期待 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86년의 成長率을 7~8 %로 보았던 것이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韓國研究院의 展望에 따르면 10.5%를 예상하고 있으니 만큼 굉장한 高度成長을 한 좋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날 아주 過熱成長을 한 해에 있어서는 16.2% 까지 成長한 해도 있기는 했었지만 10.5%란 굉장 히 좋았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經濟의 魔의 三角線인 成長은 높은 水準으로 維持할 뿐만 아니라 物價는 낮은 水準에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즉 都賣物價는 마이너스 2.0%, 消費者物價는 2.5% 上昇할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 어서 物價는 상당히 낮은 線에서 安定되고 있 는 있는 樣相을 보이리라 한다. 이에서 보면 종전의 몇 10%라는 두자리 수의 物價上昇은 想像도 할 수 없는 것으로 安定樣相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經濟의 또 하나의 어려운 經濟指標인 國際收支狀況을 보면 輸出은 332億弗에 輸入은 294億弗로 되어 38億弗의 貿易黑字를 보

# 期待되는 '87 우리 經濟 — 要는 政治環境이 安定되어야 — '86 경제와 좋았던



宋 基 澈  
(高大 教授·經博)

이리라고 한다. 우리 經濟史上 貿易黑字의 첫째가 되는 「劃期的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貿易外 및 移轉收支에도 2億弗의 黑字를 보여 經常收支黑字에 있어서도 40億弗의 黑字를 보일 것을 豫想하고 있다.

'86년에 들어 큰 幅의 黑字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黑字를 보이기 시작한 月中經常收支는 下半기에 들어와서 黑字幅이 더욱 擴大되어 7월과 8월 중에 계속 5億~6億弗의 黑字를 나타냈다. 특히 9월, 중에는 經常收支黑字幅이 무려 8億弗線을 넘어 이대로 간다면 40億弗線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지금까지 國際收支黑字를 보인 해는 지난 '65年(9百萬弗)과 '77年(1千2百萬弗) 다만 2차례 뿐이었으며, 黑字幅도 대단히 微微했었다.

그리고 國民貯蓄率도 9月末 現在 31.5%를 記錄, 總投資率 30.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海外借入에 크게 依存하던 國內投資財源을 國民貯蓄으로 모두 充當 投資財源 自立度를 100% 以上 達成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經濟史上 처음 있는 또 하나의 劃期的인 成果로 받아 들여진다.

이처럼 國民貯蓄率이 國內投資를 充當하고도 남음에 따라 '86년부터 總外債殘額을 減少시키는 한편 國際收支黑字에 의한 通貨增加分이 貯蓄으로 吸收되어 通貨에 의한 物價攪亂要因이 發生하지 않도록 稅制 金利上의 貯蓄인센티브를 계속 擴大시키기로 했다. 또 國際收支, 外債規模, 貯蓄 및 投資率 등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上의 主要總量指標을 上向調整키로 했다고 한다.

'91년에 가서야 國民貯蓄率이 33% 水準에 이르는 것으로 第6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마련했었다. '86년에 史上 처음으로 國民貯蓄率이 30%를 넘어 總投資率을 크게 上廻, 投資財源 自立調達の 元年이 된 것은 貯蓄外에 輸出好調로 國際收支 黑字幅이 9月末現在 25億1千6百

萬弗에 이르는 등 海外貯蓄인 海外借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힘입은 것이다. 海外貯蓄率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國民貯蓄率은 반대로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國民貯蓄率이 國內 總投資率을 웃돌게 됨에 따라 國內投資分을 充當하고 남은 資源을 總外資減少에 使用키로 하고 年末까지 總外債規模를 '85年 年末 보다 3億弗이 줄어든 4百65億弗, 純外債는 10億弗이 줄어든 3百45億弗 線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海外投資와 延拂輸出을 擴大, 對外資產을 크게 늘리고 당초 57億弗을 導入하려던 外資를 35億弗線에서 抑制키로 했다는 것이다.

### 三 低 時 代

'85年末부터 '86년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經濟環境에는 두드러진 變化를 보이고 있다. 요사이 흔히 말하는 經濟的으로는 三低의 時代요, 政治的으로는 政始의 해요, 社會的으로는 아시안 게임의 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三低란 우리가 그 동안에 高油價로 시달려 왔던 原油價格의 下落을, 多額의 外債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累積하는 利子負擔을 안겨 주던 國際金利의 下落傾向과 우리 經濟와 密接한 關係에 있는 美國弗貨의 相對的高評價와 日本円貨의 低評價에서 나타난 우리 元貨의 高評價에 따른 輸出不振의 한 要因이 逆轉되어 日本円貨의 強勢와 美國弗貨의 下落現象을 우리는 소위 「三低現象」 그러한 지금을 「三低時代」라 부르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問題는 이 「三低時代」를 우리가 어떻게 理解하고 그것을 받아 들이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三低時代」가 우리에게 많은 利點을 준 것은 事實이다. 國際原油 값은 '85年 1月~9月중 barrel당 平均 26.7달러 水準을 維持했으나 '86

년에 들어 産油國들 사이의 市場占有競爭이 熾烈해 지면서 배럴당 平均 14.7달러 水準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85年 보다 무려 14億3千萬弗이나 節減할 수 있었으며 年末까지 5億弗정도 追加 節減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油價下落이 中東海外建設의 受注減少와 工事代金支給遲延과 競爭激化, 採算性惡化로 不實海外建設業체가 增大되었다는 그늘로 깊어 認識되어야 한다. 이로써 雇傭減少와 經濟成長鈍化 그리고 國內金融企業을 위시한 國際金融企業에도 적지 않은 打擊을 준 어두운 面도 잊어선 아니된다.

또 '86년에 들어 國際金利가 '85년에 비해 1%정도 下落, 4百70億弗의 外債를 안고 있는 우리 나라는 外債利子負擔을 3億弗 정도 줄일 수 있었다.

그 동안에 國內企業들이 積極적으로 推進해 온 輸出最高品開發努力 등도 우리 國際收支改善에 상당한 寄與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自動車의 경우 '86年 1月~9月 사이에 무려 20萬8千台를 輸出 9億4千萬弗의 外貨를 벌어들였다. 이 밖에 VCR 퍼스널컴퓨터 半導體 등 尖端電子製品의 輸出이 本格化되고 있으며 円貨強勢에 힘입어 玩具類, 纖維製品 신발등 輕工業製品의 輸出로 急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특히 最近들어 부쩍 늘고 있는 海外僑胞들의 送金도 經常收支黑字 轉換에 큰 寄與를 하고 있다. '86年 9月末 現在 海外僑胞送金은 7億3千2百萬弗을 記錄, '85年 同期에 비해 3億1千6百萬弗이 增加했다. 海外僑胞들이 現地에서 점차 生活基盤을 잡게 되자 本國에 대한 送金を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런 「三低」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油價下落이 자칫하다 보면 第3의 石油波動을 時期的으로 더 빨리 또 더 衝激적으로 再燃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안겨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低油價로 油田開發과 또 에너지代營産業開發에 投資가 소홀히 될 수 있고 低油價가 石油에너지의 消費를 促進할 수 있고 야마니石油相의 退陣이 OPEC 強硬派의 抬頭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國際金融市場에 있어서의 國際金利下落이 이제 멈추고 再上昇의 氣勢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 또 美國弗貨弱勢에다 日本円貨高騰, 其他 主要 西歐先進國 通貨의 昂騰이 우리 經濟에 도움을 주어 우리의 輸出을 美國과 日本 그리고 其他 先進國에서 促進시킬 수 있으며, 그 地域에서의 輸入을 減縮시킬 수 있는 利点이 있다는 것이 理論이다. 그러나 對日經濟依存度가 심한 우리 經濟構造를 보아서 輸出增大는 微微하며 對日輸入을 激增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經濟의 現實이다.

또 우리의 外債中 對日借款은 円貨베이스借款이므로 円貨가 上昇하는 만큼 우리의 外債負擔은 늘어난다는 어려움을 가져 왔다. 그리고 日本은 円高現象과 原油價 下落과 國際金利引下로 그들이 輸入하는 原資材價格이 떨어지고, 國際金利引下와 그와 결들인 國內金利引下로 그만큼 原價節減 要因이 되고 있어서 그들의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面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특히 注目해야 할 일은 「三低時代」의 利点を 마치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 같이 錯覺을 하고 마치 「공돈」이라도 생긴듯이 橫財風潮가 있다는 現實을 嚴戒해야 한다. 우리와 競爭相對로 되어 있는 台灣, 香港, 싱가포르도 우리와 같은 利점을 누리고 있으며 그들도 그만큼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고 있으며, 어느 面으로 볼 때에는 우리 보다도 이 利점을 더 잘 善用하고도 있어서 이러한 相對的 局面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더우기 注目해야 할 現實은 이제 「三低時代」의 幕이 서서히 닫히지 않느냐 하는 徵候가 보

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油價는 사우디아라비아石油相인 야마니의 辭任에 따라 高油價政策으로 旋回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또 美國弗貨와 日本円貨 사이의 換率問題도 美國과 日本間의 妥協에 의해서 現在 線인 1弗당 160円 내지 165円線에서 당분간 安定시키리라는 聲明이 나옴에 따라서 弗貨弱勢問題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것이 우리 經濟에 지금 많은 困難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는 弗貨나 円貨와 많은 聯關性을 갖는 우리 元貨 切上壓力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최근의 86年 美國 中間選舉에서 民主黨이 勝利함으로써 保護貿易主義 壓力은 더욱 거세질 것이 豫想되며 따라서 元貨 切上壓力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日本이나 台灣의 換率切上幅보다 우리 元貨切上幅이 낮기 때문에 그런 切上壓力이 계속될 憂慮가 없지 않으나 하여간에 계속 점진적인 切上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1弗당 870~865원 線에서 일단 定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期待를 해 보기는 하지만 일단 여러모로 衝激을 줄 것은 憚하다.

그리고 國際金利도 일단 現在線에서 약간의 起伏은 있겠지만 安定될 것으로 보여진다. 國際金利가 계속 下向傾向을 보여 日本의 金利도 이번에 떨어졌으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側面이 없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國際金利도 일단 이런 線에서 安定될 것으로 보여 「三低」에는 큰 幅의 變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三低의 效果와 惡影響도 잠정적으로 이 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나 三低의 環境도 언제 어떤 식으로 變化할지 모르기 때문에 豫測不許로 安心이 되지 않는 狀況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87年의 經濟展望

'87年의 우리 經濟를 이런 國內外環境下에서 내다 보느냐에 대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 韓國研究院이 내놓은 '87年의 우리 經濟展望을 보면 表1과 같다. 이에 의하면 '87年의 우리 經濟는 '86年만은 못하지만 그대로 계속 高度成長을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즉 '86年의 實質成長率을 10.5%로 내다 보고 있음에 반하여 7.8%로 2.7%로 낮은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 國際收支는 '86年의 經常收支黑字 40億弗에 比해서 5億弗이 더 많은 45億弗로 내다 보고 있다. 그 內容을 보면 輸出 371億弗에 輸入 327億弗로 貿易收支黑字는 44億弗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다가 貿易外 및 移轉收支黑字를 1億弗로 보아 經常收支黑字는 45億弗로 黑字經濟를 이루어 外債도 상당額을 減縮시킬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表1. KDI의 '87 經濟展望

區 分	單位	86年	87年
GNP(實質成長)	%	10.5	7.8
總消費增加率	%	6.1	6.0
固定投資率	%	13.5	8.1
經常收支	億弗	40.0	45.0
貿易收支	"	38.0	44.0
(輸出)	"	332.0	371.0
(輸入)	"	294.0	327.0
貿易外 및 移轉收支	"	2.0	1.0
都賣物價上昇率	%	△2.0	1.5
消費者物價上昇率	%	2.5	3.0
GNP deflator	%	2.0	3.0

또 우리 經濟의 또 다른 課題의 하나인 物價 狀況을 보면 '85年의 都賣物價上昇率 마이너스 2.0%와 消費者物價上昇率 2.5%에서 '86년에는 1.5%와 3.0%로 각각 내다 보고 있어서 '86년에는 '85년 보다 物價는 꽤 오르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즉 都賣物價는 3.5%, 消費者物價는 0.5%가 각각 더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通貨량이 늘어 나고 있으며 円高 등에 의한 影響 등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러한 韓國研究院의 豫測을 바탕으로 87年의 우리 經濟를 내다 보는데 '86년은 政治의 해, 三低의 해고, 아세안 게임의 해로 볼 수 있다. '87년 역시 政治의 해, 選舉의 해, 三低의 해로 볼 수 있고 또 '88년까지도 역시 政治의 해, 三低의 해, 올림픽의 해로 볼진데 政治不安만 없다면 그리고 三低의 基本的인 커다란 異變이 없는 한 우리 經濟의 成長은 상당히 높은 선에서 維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87年의 우리 經濟成長은 '86年만은 못할지 모르나 꽤 높은 線에서 維持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한편 物價인데 '87 物價 역시 아주 옛날에 있어서와 같은 몇 10%와 같은 두자리 수 物價는 이제 想像도 할 수 없는 옛 이야기 거리로 되어 버리고 한자리 수의 物價 그것도 9~5%선인 위의 한 자리 수나, 5~1%선인 밑의 한 자리 수나 의 問題로 되어 버렸다. 그런데 物價는 '86년 보다는 좀 더 오르되 5%에서 3%선 사이에서 消費者物價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 經濟의 魔의 三角線이라는 問題중에서도 最大 難題인 國際收支 역시 '86년이 「黑字元年」 「投資自立元年」의 좋은 한 해였음을 이어 '87년에 黑字基調가 持續될 것은 편하다. 물론 여기엔 政治不安, 三低의 堅持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前題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貿易黑字와 貿易外黑字가 합쳐져서 40億弗以上

의 黑字가 期待된다는 韓國研究院의 豫測에 어느 정도 同調하는 立場이다.

다음은 換率인데 政府는 美日間에 現在의 換率로 어느정도 滿足한다는 暫定合意가 있기 이전에 1\$당 865원線으로 내다 보았는데 우리는 元貨切上이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며 870~860원線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金利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小幅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通貨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黑字時代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豫算이 이미 膨脹豫算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選舉란 大事」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의 收縮이 '87年의 主要經濟課題가 될 것으로 豫見된다.

賃金도 政府가 公務員의 賃金上昇幅을 3~4%로 보았기 때문에 物價와 결들여 大幅 引上은 있을 수 없으나 最低賃金制實施와 政府의 福祉政策 追求가 어느 정도의 強度나에 따라서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資源은 石油와 食糧 그리고 個個 企業과 特別한 關聯이 있는 資源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데, 國際原資材狀況은 品目에 따라 若干의 騰落現象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나 全般的으로 볼 때에는 國際原資材狀況은 '86年과 大同小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原油事情은 야마니石油相 退陣이후에 變化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15~20弗線이 될 것으로 약간은 오르지 않겠느냐는 말이 一般의이지만 우리로서도 이 선이면 打擊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견디어 낼 정도의 水準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食糧事情 역시 無難할 것으로 보여진다. 其他 個別資源도 品目에 따라 騰落이 있을 것이나 大勢를 左右할 정도의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不動産은 옛날과 같은 狂亂은 말할 것도 없

고 好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要地 要所는 나름대로 「妙味」가 있을 것이며 또한 不動産에 대한 規制 努力은 加重될 것이 豫想된다.

證券 역시 活氣의 生理 때문에 몇 번에 걸친 騰落現象이 展開되기는 하겠지만 1986年 上半期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暴騰現象은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리 본다면 全般的으로 볼 때에 '87年の 우리 經濟는 政治不安만 없으면 상당히 높은 水準의 經濟成長을 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그와 동시에 政府가 그 동안에 推進해 왔으며 또 推進하고 있는 몇가지 經濟施策이 계속 展開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는 不實企業 整理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不實企業을 포함해서 그들의 內實化作業의 展開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결하여 우리 經濟의 또 다른 하나의 宿題가 되어 있는 産業構造改編을 위한 合理的作業 역시 積極的으로 展開될 것이 豫想된다.

우리 經濟의 또 다른 하나의 難題인 不動産 對策도 土地綜合稅의 實施와 土地關聯 諸法律

의 整備란 方向으로 나타날 것이며 하여간 많은 規制가 加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獨寡占 規制와 公共去來秩序確立을 위한 努力이 여러모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稅制改革 努力도 계속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金融制度改編과 社會福祉政策도 계속 強化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最低賃金制導入과 國民福祉體制와 退職金制의 調整등 여러 어려운 問題가 選舉와 결하여 展開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간 '87年은 政治의 해요, 選舉의 해요, 三低의 해이기도 하고 또 黑字2年으로 들어설 수 있으며 계속 黑字基調의 基盤을 다질 수 있으나 與否가 決定지워지는 重要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우리 經濟의 轉換期를 맞아 政府는 心要한 多種의 制度改編과 運用方向轉換을 위한 社會改編 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발맞추어 企業이나 産業界에서도 슬기롭게 이에 對處하는 여러가지 努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라사랑 따로없다 긴행신고 나라사랑